



통합 생태론 (1)

우리나라의 생물학 분야 권위자인 최재천 교수는 한 방송에서 생태학을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했습니다. 비슷하게 생태신학도 관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며, 특히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 친교로 불림 받은, 하나의 창조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자연 생태계의 생명체들 간의 관계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서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은 자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생태적 책임은 인간을 경시하면서 다른 피조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피조물,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을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관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러한 비전이 바로 「통합 생태론」(「찬미받으소서」 제4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있었던 아마존 특별 시노드의 후속으로 발표하신 교황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에서 이 비전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 형제자매와

당신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사해 주시는 환경을 돌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생태학입니다. (….) 사람을 돌보는 일과 생태계를 돌보는 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41-42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통합 생태론은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평화 생태학”을 계승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평화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피조물과의 평화와 인간 간의 평화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8항)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열대림의 무분별한 파괴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가꾸면서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와의 공존을 깨뜨리고, 기후 위기를 심화시켜 인류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은 어쩔 수 없이 숲 벌목과 야생동물 밀렵에 나서며, 더 나아가 야생동물과의 접촉으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도 떠안게 됩니다.

두 교황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평화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함께 모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과의 평화가 인간 간의 평화와 자연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이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 책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끈뽕뽕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